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Sung Ok Cho, Publisher
S. S. Kim, Editor

VOL. 8 NO. 7

SEATTLE -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December 1979



79년도 정기 총회에 임하여

지난 11개월간 본인이 한인회 회장직을 맡아 오면서 고로 여러분의 몸심양면의 건전 협조와 성의에 감사드리며 저의 가장 가까운 거처에서 본인의 계획과 실현에 심심 심의전 협력을 아끼지 않던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1979년도 한해는 본인에게 있어서는 강력적이고 뜻있는 하루하루의 연결이었으며 바쁘건대 이면 하루하루의 입과가 언뜻날 이곳 고로 사회의 도약적인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한숨밖에 배부롭지 않았고 뜻있는 자에 힘이 있다듯이 이렇게 조금씩의 도전은 뜻이 있는 한 연결가는 심취 담당이라 믿어 마지 않습니다. 지난 7월 본인이 회장직에 부임한 이래 회관 건립위원회에 임하기전에 지난 7월까지 동본서주 회관건립 탐색에 분분하였습니다. 고회 협회와도 연결하여 최소한의 적은돈으로 최대 한의 이용 가치를 모색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N.Y. Seattle 에 있는 고회건물처럼 일부는 학교로도 사용할수 있는 적합한 건물이 있었음니다만 재정적인 불합리성과 매달 지불해야 하는 상당한 액수에 도저히 용단을 내릴수 없는 처지였고 이로 인하여 회관건립위원회의 재발족에 무언가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되었던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의 해결책으로 County Executive Mr. Spellman 에게 두 차례에 걸쳐 재정적 도움을 요청하였고 시의회 회장 Mr. Smith 에게 직접 직정을 마친 내지는 이곳 State 또는 시 County 별로 모두 서한을 보내도 보았었습니다. United way 에 신청한 \$2,000 정도 립은 관문을 모두 무사히 통과하여 15단짜리에 끼우는 영광도 있었음니다만 무참히도 결선에서 누락되고 마는 처지였습니다. 이러한것도 내년에는 금년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연구하여 신중하면 가능한 방법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인학교와 강연회에 대해서는 총영사관을 통하여 본국정부의 후원을 적극 요청하여 보았었고 대사관에 있는 교육관을 통하여도 특별한 대책요청을 하였었고 이곳을 다니기신 본국정부요원들에게도 고로 한인학교의 필요성과 존재필요성을 강조 내지는 대책도 의뢰해 보았습니다. 아직도 준비사항이 많았음니다만 그럼에도 충분히 하고 갈수 있는 교육자제도 이제는 준비 되었고 좀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교육방법만 강구하여 이의 실현을 꾀하여보면 반드시 우리의 희망은 이루어지고 봅니다. 양노회 창회에 있어서도 본인이 강구하였던것은 한인회와의 협력이 가능할때 또한 이의 창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었고 노인 여러분의 거처가 그분들로부터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야만 되지 그분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강하게 해서 안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인은 지난 11개월간 임무를 수행해오며 2명으로있던 한인회 봉사부 사무원을 1명 증원 3명으로 본주한 봉사부 임무를 관장처리하였으며 본유기 총무부장의 총무임과 또한 지난 11개월동안 의 업무이었고 이의 실현을 위해 동본서주안 구부장들의 노고는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정적 또는 정신적으로 본인에게 협조해준 고로 여러분에게 감사, 거듭 감사드립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 한인회는 여러분의 가정이어야 합니다. 가정의 의미는 손수한것이어야하고 맑고 닦고하여 빛을 내고 정열한 꽃동산을 만들어 꽃과 나무를 심고 물을 주어 정성스럽게 키워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그곳에 나의 육신과 마음이 함께 있어야하고 그 청순한 심신은 그 청순한 이웃 가정과 떨어질수 없는 대화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또한 내가 존재 하고 있다는 막강한 생의 존엄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망망대해 우주공간에 한낱 티끌에도 지나지 못할 존재이요 억만년 우주창시역사에 하루살이에도 미치지 못할 잠깐 다니는 한낱의 인류, 그 중에서 우리 인류는 대화를 창조하였고 대화는 우리인류만이 갖일수 있는 가장 보배적인 무기이고 이 무기는 항상 사랑스럽도록 보배적이어야 합니다. 고로 여러분! 이제 어느 후임자가 제 다음에 이곳 고로사회의 심부름꾼이 되더라도 항상 그분의 주위에서 그분에게 용기를 북돋게 하여주시고 그 분으로 하여금 마음에서 울어오는 진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만이 우리가 우리 동족을 느끼게 할수 있는 근원지가 될것입니다.

1979년 12월
 씨애틀 한인회 회장 조성욱

선거를 마치고

1980년도 씨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회장단(회장 1명 부회장 2명)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3명을 새로 선출하는 선거가 지난 11월 10일 총회에서 무사히 마쳐진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예년과 같이 3명의 이사를 선출하게 되어 있었는데 3명의 이사 후보자가 등록하였으므로 무투표 당선되었습니다. 회장단 선거에 있어도 단일 후보이기 때문에 투표도 없이 노후기 선거가 끝났습니다. 한인회 본 아니라 한인사회에 소극적인것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많으므로 많이 희망될수도 합니다. 내년도 총회에는 더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한인회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지도 역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장 김연중

1979년 11월 10일 개최되었던 총회에서 1980년도 씨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회장단이 선출 되었고 새 회장단에는 회장에 정철식씨 부회장에 양매송, 노순영, 제씨입니다. 또한 색이사 3명에는 엄명보, 김정부, 김부영씨이며 이사장에는 엄명보, 부이사장에는 김부영씨입니다. 육하와 성원을 드립니다.

1979년도 아리랑의 밤

(씨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주최 송년 잔치)

본 한인회에서는 아택와 같이 다양한 손서를 마련하고 고로 여러분들과 자리를 같이하여 한해를 보내는 뜻깊은 송년 잔치를 하고자 하오니 부디 내왕 하시어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씨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회장 조성욱

장소: 씨애틀 센터 San-Juan Room

(씨애틀 센터 안에 있는 실내 체육관 북쪽 옆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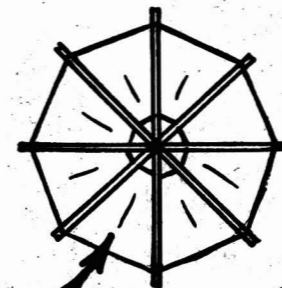
일시: 1979년 12월 22일 (토요일) 오후 6:00 - 새벽 2:00

잔치 내용:

1. 경품 추첨 (백미, 시계, 백미 등등 기막 무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음)
2. 노맥 자탕 (각종 상품이 준비되어 있음)
3. 장기 자탕 (각종 상품이 준비되어 있음)
4. 우수 학생 선 발 포상 (상품 수여)
5. 로자 로니 로부 포상 (상품 수여)
6. 고로 유공자 포상 (타수)
7. 흥겨운 댄스 파티

기부:

1. 저녁 정식 제공 (8가지로 짜여 있는 양식)
2. 5인조 밴드 출연
3. 입장료 1인당 \$10⁰⁰



송년잔치장소
 SAN-JUAN ROOM



조직을 생각해 본다

박암

조직

5. 운영체와 총회와의 관계

조직의 운영체는 결코 그 "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임원 전체를 말한다. 그러나 조직의 운영체란 단체도 단체도 될 수 없는 특수체인데 이 특수체는 곧 다수의 결체를 말하는 것이니 그는 물론 민주주의 방식이 된다.

이 운영체는 국가로 보면 마치 정부 같은 것인데 이 운영체 안에는 운영을 집행하는 부원과 그 운영체부를 심사하는 감사 부원이 있다. 이 운영체란 물론 총회를 산모로 하고서야 비로서 반성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운영체가 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운영체의 스스로의 권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총회와 권한 위임에 의해서만 비로서 운영체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회장이 소유하는 과거지 권한사항도 물론 총회에서 수권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총회는 조직원들의 의사의 집결체이다. 총회는 조직의 모체이다. 총회는 조직의 필요한 모든 기능을 부여해 준다. 그러므로 총회는 조직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회장의 최고 권위도 된다. 총회는 집행기관의 상의에 처해 있다. 총회는 집행 기관을 지도 감독해야 한다. 그러므로 총회는 입법기관으로 보고, 운영체는 행정기관으로 보면 될 것이다.

운영체의 독립행위는 이회전체의 유기적 기능을 파괴 하는 것이 된다.

6. 민주주의 방식

그러므로 조직의 운영은 그것이 법적인 것이든 임의적인 것이든 관계 없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합도덕적이고 합법적이고 합목적이고 당연한 것이 된다. 지금이 민주시대라 그 때서 반드시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에 성립했던 과거의 모든 조직들도 목적을 관여하는 회원들의 상호조직인 이상 그 조직은 반드시 토론하고, 협의하고, 양보하고 마찰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운영 되었으리라는 것은 조직이 가지는 그 원칙을 통역 우리는 심사키 추측할 수 있다.

7. 임원이 가져야 할 자각

자각이라기 보다, 인격이라 하고 싶다. 물론 심견과 경험과 사티와 지혜가 구비한 인격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좀더 상세히 말하자면 우선 그 인격성의 솔직담백함과 관대함 (개방적)과 임(봉사)을 위한 자기 희생과 대사회와의 조화성과 장점을 애견할 수 있는 선견지명과 창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비록 심견과 지혜가 풍부한 사람이 되고 해도 그 심견에 표리가 있어 불손하다거나 향이 좋아 남의 의견을 존중할 줄 모른다거나 자기의견만을 내세워 고집한다거나 자기위치를 지키기 위해 회를 객색적, 정실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으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비록 임원에 선정 되었다 해도 자기를 의학, 회를 의학, 결대로 그 직책을 수락하지 않아야 하고 이렇듯 우려가 있으리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회원들도 결대로 임원으로 선정하지 않는 것이 자기의 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성격이 솔직담백지도 관대하지도 개방적이지도 못한 사람, 표리가 불일치한 사람이 임원으로 선정되어 그 책임을 지게 되면 반드시 자기 고집이나 상심관계를 만들어 편당이 생겨 본파투쟁을 하게 되고 본파투쟁을 하게 되면 이성은 뒤로 물러서고 감정이 앞장을 서게 되니 결국은 자유민주 야당처럼 같이 그 들기에도 어스려운 "극한투쟁"이 생길 것이고 극한투쟁이 생기면 반드시 회가 둘로 쪼개지고 기층이 정지되거나 혁신이 되게 되면 아니라 심하면 이 투쟁을 법정까지 끌고 가서 법의 심판까지 받아야만 하게 된다.

생각해보라 자기들 인권향상과 복지증진과 사회 발전을 위한 조직된 조직이라는 것이 이기경까지 이르고 보면 인권향상, 복지증진과 사회발전은 그곳도 없으려고 도리어 그 반대현상을 일으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격을 잃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기탄을 받고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사회에 끼치게 되는가. 이 경우 사회의 모든 언론 기관은 이 조직의 이반사회적 사실은 대서특필, 규탄도 하고 사회에 보도도 하게 될 것이고 그 장본인들은 그들이 저지른 그 큰 반사회적 실행으로 인해서 타서는 사회에 업구를 두고 못 다니게 되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사회에서 생애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세상에서 사람을 볼 때에 그 태도가 그 인격과 그 창의성보다도 그의 사회적 지위, 명예, 재산같은 피상적인 것을 많이 본다. 일본 보기에는 이런 사람이 많아 대내 대외에서는 회원들이 세우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람과 사람의 단결로 이루어진 조직을 사람으로 인격으로 운영할 생각은 이니하고 외명만을 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 이런 분절적인 사대주의적 마성은 예방후 그 태만이 생겨났던 우리들의 사회조직이 우리 사회의 발전과 향상을 돕기는 커녕 그 얼마나 우리 사회를 소란케하고 민족적 입지에 많은 지장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1. 한인회 내역

1967년, 한인사회의 뜻있는 몇 분이 모여 첫 발족을 본 한인회는 오늘날까지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고포들의 생활 향상과 권익을 옹호 하면서 13년간 끊임없는 발전을 하여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30,000 명으로 추산하는 한인들은 전년에 비해 한인회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어 앞날의 발전이 더욱 희망적입니다. 한인회는 한인회 회칙에 준하여 운영해 왔으며 회장을 비롯한 전 임원은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왔습니다.

2. 역대 한인회 회장 :
- 초대 이창희 8대 구 법희
 - 2대 이창희 9대 신호남
 - 3대 이신복 10대 김성길
 - 4대 전계상 11대 김형진
 - 5대 이현기 12대 김형진
 - 6대 이현기 13대 조성욱
 - 7대 한만섭

1979년도 한인회 사업보고

(일자)	(행사 내용)	(장소)
79.1.6	교민 약 120명 참가, 약 3시간 동안 시위	SEATTLE TIMES사 앞
1.21	임원회 총회 개최	한인회 사무실
2.10	한글학교 개학식, 이사회	COMMUNITY CENTER
3.3	3.1절 행사	"
4.20	문화 영화 상영	한글 학교
4.27	회관 민중 하우스와 현담식	한인회관
5.4	역대 한인회장 및 이사장 잔치회	선경식당
5.12	아시아 재민대 참가	차이나 라운
6.9	한 바다호 영정 (해양대학 상송)	시애틀 70부두
6.11	한인회 주최 해대생 단란회	클버리 홀
6.30	한글 학교 학기 말식	"
7.7	시애틀-밴쿠버 한인 친선 야유회 개최	밴쿠버 CENTRAL PARK
7.21	밴쿠버시 총영사배 장학 재1회 축구대회 (SEATTLE TEAM 우승)	밴쿠버 한인회
8.4	광복절 경축 기념식 및 4개 도시 대항 축구대회 (포틀랜드팀 우승)	메모리얼 파크
9.5	교육 자재 및 교육비 인수 (총영사관으로부터)	"
9.8	한글 학교 개학	"
10.12	수재 의견권 승급 기약 (총액 \$ 1/13만 이후 총 2000여명)	한글학교 시애틀 지구
11.10	79년도 정기 총회 및 80년도 회장단 선출	LANSTON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 O. BOX 24992, SEATTLE, WASHINGTON 98124 (206) 767-7934, 7935

STATEMENT OF FINANCIAL REPORTS FOR JAN 1 THRU OCT 31, 1979.

Source	Amount
Amount carried over from 12/31/78	\$31,058.75
CETA	\$18,901.69
DUES	\$1,185.00
ADS	\$2,210.00
Donation 1. General	\$1,222.54
2. Party(Merchant Marine) Student	\$4,400.00
3. Soccer game	\$689.00
4. Educational Programs	\$1,625.00
5. Flooding Disaster fund	\$1,737.72
Total:	\$35,029.70

Application	Amount
Salary(CETA)	\$19,675.93
News Letter	\$2,000.90
Telephone	\$1,004.50
Office Rent	\$1,792.00
Petty Cash(Postage)	\$760.00
Educational Programs	\$1,085.61
Korean Community Recreation	
1. Receptions	\$1,880.15
2. Sports Event	\$1,693.20
Flooding Disaster Fund	\$1,769.52
Others(donation, employee, travel expense bank service charge, ETC:)	\$1,527.01
Total:	\$33,388.82

End of Oct 31 79 Balance.....\$1,640.88 *
 Building funds checking acct: \$1,679.10
 Building funds(Rainier bonds)
 Bond #15515 as of 10/14/79 \$3,761.44
 Bond #15544 as of 9/4/79 \$5,366.50
TOTAL: \$10,807.04

KOREAN COMMUNITY SERVICE CENTER
 It is the Association's multi-service center staffed by two full-time workers, one Administrator/Program Director and the other, Administrative Trainee, Health Care Research Assistant, whose positions are CETA-funded through the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 of the State of Washington. Its operating expenses are being met by donations and membership dues. Please note that our Korean Community in general has had a visibility problem, as our people are often grouped and treated as one of the Japanese and Chinese communities for their look-alikeness. Our people are relatively new-comers compared to Japanese and Chinese, and for this reason unemployment and social problems among our people are greater. Thanks to the State's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 which made the operation of the Center possible by providing the two CETA positions. In fact, this is the first, major act done by the State for the benefit of our community. Many thanks to the Governor Ray.

- For the Service Center's operation from Jan 1, 1979 to Oct 31, 1979 the following services have been provided by the Center:
- (1) Job Referral (68)
 - (2) Employment Counseling (140)
 - (3)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81)
 - (4) Finding shelters and apartments(31)
 - (5) Domestic problems and counseling (102)
 - (6) Referrals of legal services (40)
 - (7) General counseling and referrals(46)
 - (8) Ride/Transportation provided (49)
 - (9) Telephone calls and inquiries(10 to 20 a day)

우리의 이로 전성시절에도 사회와 계급의 구분은 딱딱 많은 조치가 있었으나. 양반계급에 속하는 보편적 조치는 서연, 학교, 사회, 종친회등이 있었고 일반으로는 향약, 계두택, 보, 현민회등은 보부상, 종택, 제인, 뽕장, 파정때등 사회 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조지를 막론하고 권모 입원들의 사육이나 영예를 위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지전원의 권익을 도와 복지 향상을 위해 조지를 가지게 됐고 또 조지의 힘을 통해 사회의 향상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존재의의와 가치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10. 결론

조지를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조지를 국가로 볼수 있는데 국가 역시 인간에 의한 조지인 이상, 국가가 복귀하는 바로 국가조지 전원, 즉 국민전체의 영복 증진을 위해 있는것이지 결코 국가의 최고 권력이나 정부를 구성하는 권모들의 부귀를 위해 있지않다는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있는 사실이다. 우리 농양의 도는 하늘로부터 이어받은 하늘의 도다. 하늘의 도는 사람과 천지 만물을 생성발전 시키는 데있다. 그 배나 이 선도에는 편사가 있다. 저공부 사하다 그 때로 우뚝오의 처자는 이 선도롭고 정신으로 하는 까닭에 그 정치는 하나에서 열까지 다 백성들을 위해있게되었다.

이런 까닭에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었다"고 했고 또 임금은 백성을 보도록 성책으로 해서 임금이 된다. 고도 했다.

말을 바꾸어 보면 백성없는 데는 나라도 없고 나라가 없는 데는 임금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비록 그가 임금이 되고 해도 이는 천도와 인도를 반역한 자라는 임금이 아니고 하늘과 백성의 적이다. 어떤 임군은 하늘과 백성들의 적이다. 이를 몰아내고 정량 백성들을 하늘이 사람이기도 사람일수 있는 하늘의 새로운 수령자가 천도와 인도를 반역한 임금을 축출하고 그 대신 이 사람이 임금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곧 중국의 역성 혁명이 말하는 이치다.

민주시대에 있어서의 모든 조지도 그 원리는 이와 다를 것 하나 없다. 역적이란 반드시 군주권정시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역적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역적이란 도리를 기술히 사람들을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을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어떤사람을 말하는가. 우선 그는 남에게서 받아오는 오피제가 주어어있을 것이 없이 사는 자는 아니니, 사납, 아니 주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어오는 것이 없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세상에서 곧, 어오고자 하면서도 세상에서 곧, 어오아은 이 많은것을

그 면저한 예로서 정당들의 정권쟁탈전이었다. 정당이란 어떤, 어떤 다 나뉠을 위해서만 그 조립의 의의 가 있지 정당자체의 권력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떤 정당을 믿을수도 없을뿐 아니라 그 존재에 대해 가시를 부여해 줄 수도 없다.

왜냐하면 정당의 존재의의가 나뉠을 위해 있을 때 정당은 비로서 그 사명을 다할수 있고 정당이 나뉠을 위해 사명을 다하게 될때에 국민으로부터 그 신임을 얻을수 있고 국민으로부터 그 신임을 얻는 정당이 아니라 비로서 정권을 바꿀수도 있다.

그 때서 정권을 쥔 정당도 정권을 획득하려고 하는 야당도 국민의 신임을 얻어 보지도 못하고 정권을 쥔 정당은 정권을 아니 내놓겠다고 가진 술취과 모략을 계속하다가 결국 4.19, 5.16 혁명에 봉착해서 국민의 신임은 생과지옥과 정권만을 위해서 국한 투쟁을 벌이던 자유, 민주정당은 어찌없이 허무하게 가고 말았다.

이 두정당이 다 그 공을 위한 사명을 다하기로하고 국민으로부터 그 공과를 재계세를 인정받았던 것인데 사실은 국민에게 공약한 "국민을 위한 정당" 이라는 그 공약은 그들의 정권을 위한 사육때문에 완전히 망실했을 뿐 아니라 위정척사들이 시작되던 그때 벌써 그들의 존재 자체는 원천히 무가치하게 되어 버렸던 것이다.

공은 공으로 운영해야지 공을 사를 위해 운영할 때 그때 벌써 그 공은 억압당하고 만 것이다. 억압당한 공은 절대다수의 억압을 하는 자는 절대다수라 억압을 한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억압을 당하는 절대다수의 공의 반격으로 인해 결국 산산이 허무하게 되고 만 것이다.

8. 조지의 발전과 쇠퇴

개인이던 조지이던 그 어느 영택을 물론하고 사람의 심판은 그것이 의외로 있을 때 정당했을 때 흥하고, 불의로졌을 때-정당까지 못했을 때 망한다는 전체관념을 안어두고 그 공시생활을 영위해 가야 할 것이다. 해방후 우리에게 있었던 그 수리한 국왕과제의 조지는 그 모두가 다하고 함정도로 그 중점을 사람(인구)에 두지 않고 물질의존, 권력 의존에 두었음으로 회의 간부와 회원은 있어도 물질의 기초와 권력의 배경이 없어지고 나면 회의 내용과 영제도 이와 동시에 사박적 없어지는 심박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사람의 입에 있어 그 시발과 그 결과와 그 결과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의존한다. 그런데 사람의 하는일이 사람으로 시발하여 사람으로써 결과를 짓지 못하고 돈으로 또는 권력으로 시발물에서 돈 또는 권력으로 결과를 짓는다면(오세 사람들은 다 사실 많은 사람이 시발에도 돈이 시발하는 것으로 알고 결과가 사람으로 돌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권력으로 돌아가는 것같이 착각들을 하고 있다) 이는 확실히 주권대로 임대모순이라 어떤관념의 착각과 행동의 모순으로서는 사람은 불가불 봉합할수밖에 없다.

아무리 사람이 못하고 그 권력이 강하다고 해도 사람없는 세상에서 는 돈과 권력이 산더미같이 쌓여도 그것은 인간의 가치도 없는 비록 밖에는 될것이 없다.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하는 것이 그 순서고 사람이 있어 사람이 사람을 위해 돈을 쓰게될때 그때 비로서 돈의 영세를 하게되고 사람이 있어 사람이 사람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게될때 그때 비로서 돈과 권력이 권력, 영세를 하게된다는 이치라, 이 귀리를 우리 영심 불망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 권리와 그 권력을 본능이하고 있을 의를 게 세비할때 조지자체는 물론 사회와도 그 발전을 같이할수 있는 까닭에 어떤 조지에는 사람이 자연히 모이도록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조지에는 자연 인제와 돈과 권력도 모이도록 마련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선의로 모이는데는 자연 인제가 이루어 집게이고 인화가 이루어 지던 조지의 하는일은 자연 조지와 사회를 위해 유익한 일이 될것이라 조지의 단결 또한 자연 이루어 집게이다.

원고하니 사람이 선의로 모였으니 거기에 무슨 우열 정단이 는게 집게되고 자기고집 또한 있을 터 없으니 조지는 선의로 모였으니 곧 모를 닮지 않았고 있는 조지와 사회를 위해 의로운 인간을 하게되니 자연 본밖에 사람들이 많이 때문으로 들어와서 영조를 하게될때니 이 회의 발전은 자연이 이루어 집게이다. 어떤 까닭에 그 조지는 자연 사회에 그 영성을 펼쳐게 되고 회가 영성을 펼쳐게 되니 자연 그 간부들, 그 회원들도 이 사회에서 존경을 받게된다.

회가 쇠퇴할 경우는 이상과는 반대되는 사배가 벌어졌을때인데 간단히 말해서 사람의 본위, 임 본위로 있을 하지않고 자기본위, 영에본위, 돈 본위, 권력본위로 있을 때 영택의 인구가 부족하고 영의성이 없을 때, 혹은 회원들은 인연간여 감정대립이 있을 때 또는 회가 그 사회공조의 지양하는바 영택과 조파를 이루기 못했을 때는 (비록 사회 개혁을 뜻하는 조지이라고 해도 그 사회와 거리를 멀리 해서는 일이 없린다) 회의 발전을 기대 할수가 없다.

9. 조지의 역사

조지이란 말로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부터 있게된것은 아니다. 조지의 역사는 인류와 같이 생겨 오를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조지의 역사가 국가이전, 가정, 부락, 부족시대 부터 이었다고 한다면 조지의 역사가 말로 유구하다고 아니할수 없다. 과거가 유구했던 것과같이 미래의 조지도 인류와 같이 영성할것이다. 왜냐하면 인류는 원래 한사람으로서는 살아갈수 없는 존재물,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그 생활 향상 발전시키려면 많은 사람들의 상호 협조와 단결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두사람이상이면 사람이므로 배어날수 없고 살아갈수 없는 사람의 그 영성으로 보아 당연한 일이다.

KOREANS URGED TO MAKE 1980 CENSUS WORK FOR THEM

By Harry Hyunkil Kim
U.S. Bureau of the Census

About 78 percent of all households will receive a basic form of about 20 questions. This form should take the average household 15 to 20 minutes to complete. The remaining 22 percent, who are selected on a sample basis, will receive a longer form containing about 70 questions and requiring 45 minutes to one hour to finish.

Taking a census is a huge and expensive job. The 1980 census will cost over \$900 million and employ approximately 265,000 temporary workers. They will work out of 409 temporary offices with about 4,000,000 square feet of floor space and equipped with simple cardboard furniture. The Seattle area alone will have over 1,000 census takers and 81 crew leaders. The offices will stay open from January 2 until the field work is completed in the summer.

The Bureau's computers then take take over and add up the facts. The computers produce statistical tabulations for the Nation, states, counties, cities, neighborhoods, census tracts, and even city blocks. Billions of numbers will be published in reports which are expected to run to over 300,000 pages. Microfilm and computer tape versions will also be available.

Only statistical totals are ever published. A special Federal census law (Title 13 of the U.S. Code) protects the personal answers on individual census questionnaires from being seen or used by anyone outside the Bureau of the Census. Bureau employees are required to keep secret all personal information or face a prison term of up to five years and/or a fine of up to \$5,000. No census employee has ever been charged with breaking this pledge of confidentiality. This held true when Japanese-Americans were being interned during World War II.

By January 1, 1981, the President will have the final state population figures on his desk. Once again the information foundation on which America is run will be in place. The census and its results will be as important for Korean-Americans as for the rest of the country and their help is needed. The Korean community needs accurate facts about its own members in order to plan for the future. Your participation in the 1980 census is necessary and important. Make sure you are counted on April 1.

The United States Census Bureau's job is to count people. But Korean-Americans have a personal stake in an accurate census and Asiatic community leaders are urging them to stand up and be counted. At issue is how millions of dollars in federal funds will be allocated to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coming years. For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an accurate census could result in federal grants designed to meet their special needs.

Today, the census means financial power. The Federal government uses census figures to distribute an estimated \$50 billion. These funds are sent from Washington to state and local governments for a variety of community needs, including housing, education, aging, manpower training, highways, public health, community development, legal service, parks and recreation, day care centers, better schools and playgrounds, and other specific programs. State governments in turn use census statistics to parcel out funds to their counties, cities, and towns.

The census also means political power. Since 1790, the census has had a constitutional mandate to count every U.S. resident so that seat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can be divided fairly among the states on the basis of population. In addition, census statistical totals are now used by states and local governments to redraw their own election district boundaries under the one-person, one-vote principle.

Because of the widespread use of census data, the 1980 Decennial Census is expected to be the most important ever taken. On March 28, the Postal Service will deliver a questionnaire to each of the 86 million households in the Nation. On April 1, Census Day, 90 percent of the population will be asked to mail back their completed questionnaire in the postage-paid envelope provided. If census forms are not mailed back, census takers will collect the information in person.

Forms filled out by the remaining 10 percent of the population, who live in sparsely settled areas, will be picked up by census takers going door-to-door — almost the same techniques used by census enumerators 190 years ago when George Washington was president.

한인회

고국의 수재민 구호를 위한 외연금품 모집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씨애틀에 있는 각교회와 식료품가게, 특히 TODD 직원 들로부터 수재민 구호금품 및 외류2상자(1,518 파운드)를 정기 인수하여 고국, 사회복지기관으로 우송하였습니다. 우송료는 Union Pacific Trading Co에 근무하시는 김 인국씨께서 송료 전액을 부담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우표



수재외연금 내신부	
한국가게 모금합	\$4.99
이 해진	\$200.00
김종철	\$50.00
영제교회	\$229.21
TODD 직원	\$400.00
마중마마켓 모금합	\$20.94
Grand food 모금합	\$45.74
중앙식품 모금합	\$74.35
오대양 모금합	\$27.62
용접학교 모금합	\$2.60
해병대 동지회	\$41.00
오준걸	\$50.00
한만섭	\$30.00
중앙교회	\$150.00
안식교회	\$50.00
이동립	\$700.00
마중마마켓주인	\$50.00
김현중	\$50.00
김간난	\$50.00
김봉걸	\$20.00
조병규	\$700.00
중앙식품 모금합	\$27.50

한인회비 납부자 명단

구범희 : \$30.00	노손업 : \$15.00	백현연 : \$15.00	박봉수 : \$15.00
정철식 : \$30.00	황오범 : \$10.00	윤연아 : \$15.00	김용세 : \$15.00
한용수 : \$15.00	우경남 : \$10.00	김성일 : \$10.00	허영 : \$15.00
박법신 : \$15.00	정본식 : \$20.00	유인정 : \$15.00	김정부 : \$15.00
조영 : \$15.00	이광술 : \$15.00	변종희 : \$15.00	오광식 : \$15.00
엄평보 : \$15.00	이상목 : \$15.00	서병춘 : \$10.00	임춘식 : \$15.00
박봉수 : \$15.00	곽종세 : \$15.00	김부영 : \$15.00	임정수 : \$15.00
강백현 : \$15.00	오용근 : \$15.00	손, 김 : \$15.00	김수영 : \$10.00
이규하 : \$30.00	오일성 : \$15.00	김경부 : \$15.00	박상호 : \$10.00
한봉우 : \$20.00	김진홍 : \$10.00	신호범 : \$15.00	이규명 : \$15.00
		남상업 : \$15.00	조병우 : \$20.00
		윤옥자 : \$15.00	



와싱턴주 공수 동지회 발족 (1979년 10월 27일)
 회장- 김경도 박모마(572-6658)
 총무- 김용세 씨애틀(762-3073)
 조직- 김백만 (848-0804)
 공수 특전단 또는 공수교육을 수료한 장교 하사관 사병(박군 포함) 여러분들과 지난날을 회상하며 님들처럼 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연락요망.



연세대 동문회
 1979년 12월 8일 토요일 씨애틀에서 연세 동문회를 합니다. 주소 연락 바랍니다. 전화 838-3694
 주소: 3712 S.W. 319th ST Federal Way Wa 98003

이영주 치과외사 에드몬드에서 개업
 지난 3년동안 미육군 군외관으로 근무해 왔던 이영주씨가 지난 9월부터 씨애틀 북쪽 에드몬드 에 있는 Stevens Dental Center (치과 전문병원)에서 유일한 마이너리티 치과외사로 개업하고 환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소: Stevens Dental Center 20728 76th Ave W. Edmonds Wa 98020
 병원전화: 775-3456
 가택전화: 542-8868 / 775-0575

LETTER OF INVITATION

Date :

To whom it may concern :

1. I, undersigned, residing at _____ would like to invite my _____ residing at _____ for the purpose of (visit or joining).

2. Reason for Invitation

3. Identical Subjects

a. Invitor Name : _____ (Former Korean Name, if any)

Date of Birth :
 Passport Number :
 Date of Issue :
 Validity :
 Visa Status :
 Date of Entry to the Staying Country :
 Occupation :
 Relationship :

b. Invitee Name :
 Date of Birth :
 Occupation :
 Period of being Invited :

Invitor's Name & Signature



한국 미술 5,000년
 지난 11월 1일부터 1980년 1월 13일 까지 씨애틀에서 한국 미술 전시회를 열고 있으며 많은 고향분들의 관람 있으시기 바랍니다.
 장소 : Seattle Art Museum at Volunteer Park
 시간 : 화요일-금요일(오전 10시-오후 5시)
 주말-오전 12시-오후 5시
 화요일, 목요일-오후 7시-10시



SPIRIT OF THE TIGER Folk Art of Korea



한국의 민족 예술이 "호랑이와 얼"이라는 명제 아래 1979년 12월 5일부터 1980년 3월 28일 까지 씨애틀 예술 박물관의 후원으로 워싱턴 버버 기념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서울에 있는 에밀백 박물관장 조 작용씨를 포함 몇몇 한국 문화관련한 전문가들에 의해 이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신라, 고려, 이씨 조선을 총망라해서 도합 170점-180점의 작품이 전시 될 것이며 미국에서는 처음 소개된 신기한 한국작품이 많다고 하며 관객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 예술을 이 기회에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전시회-1979년 12월 5일 까지
 장소-토마스 버버 박물관
 주소-15th N.E and N.E 45th
 에 있는 워싱턴 주립대학 캠퍼스 서북쪽에 위치
 시간-화요일-토요일 (오전 10시-4시30분)
 일요일-오후 1시-4시30분
 목요일-저녁 9시 까지 개장
 요금-학생, 소인, 노인 \$1.50
 성인 \$2.50.

DECEMBER 5, 1979
- MARCH 28, 1980



FARMER S INSURANCE GROUP

정 문 언
GOOD STUDENT DISCOUNTS — LOW RATES FOR CAREFUL DRIVERS
NON-SMOKERS SAVE ON YOUR AUTO, FIRE AND LIFE INSURANCE

AUTO • LIFE
 BOAT • TRUCK • FIRE
 HOME OWNERS & COMMERCIAL

454-6503

555 116th N.E. Suite 206 Bellevue, WA 98004

씨애틀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무료 의료 봉사 센터 주소목록

COMMUNITY CLINICS

- | | | | |
|--|----------|--|----------|
| Country Doctor Community Clinic
402 15th East
Seattle, WA 98112 | 322-6710 | Southwest District Health Office
10821 - 8th Ave. S. W.
Seattle, WA 98146 | 244-6400 |
| International District Community Health Center
416 Maynard Avenue S.
Seattle, WA 98104 | 622-9650 | | |
| High Point Community Health Center
3142 S. W. Holly St.
Seattle, WA 98126 | 935-8150 | | |
| Holly Park Medical Clinic
2840 South Holly
Seattle, WA 98108 | 725-0999 | | |
| Rainier Vista Medical Clinic
3006 S. Oregon
Seattle, WA 98108 | 723-6151 | | |
| Sea-Mar Clinic
8720 14th Avenue S.
Seattle, WA 98108 | 762-3730 | | |
| Sydney Miller Medical Clinic
(Carolyn Down's Medical Center)
1422 - 34th Avenue
Seattle, WA 98122 | 324-0402 | | |
| Yesler Terrace Health Center
102 Broadway #610
Seattle, WA 98122 | 625-9260 | | |
| | | <u>HEALTH DEPARTMENT CLINICS</u> | |
| | | Central District Health Office
Public Safety Building, 3rd & James
Seattle, WA 98104 | 625-2571 |
| | | North District Health Office
1600 N. E. 150th
Seattle, WA 98155 | 363-4765 |

한인 변호사 에디 윤 (EDDY YOON)
 (전직 타코마시 검사)

이혼. 취업 운전. 자동차 사고. 절도 사건.
 영주권, 시민권, 각종 비자 문제. 추방 명령.
 직장 상해 보험. 한국 미대사관 관계의 이민사황.
 회사 설립. 민사, 형사 소송에 관한 문제.
 기타 모든 법정 문제.

* 전화 SEATTLE : 365-6898
 TACOMA : 565-6005

고 이창희 선생 기념 장학회 신청 양식

CHANG-HEI LEE MEMORIAL SCHOLARSHIP FUND
 2728 N.E. 100th Street
 Seattle, Wa. 98125

SCHOLARSHIP APPLICATION FORM

Applicant's Name _____ Date of Birth _____ Sex: M F

Mailing Address _____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Applicant's Year in College _____ Major Field _____

Name of applicant's School _____ Expected Degree _____

Reasons for need (explain briefly your qualifications and need for financial assistance. Use additional sheets if necessary. Please answer in English or in Korean).



그랜드 식품



☎ 저렴한 가격 · 신선한 식품 · 친절한 봉사 ☎

"미래를 지향하는 그랜드 식품점,
 나 날이 발전하는 시애틀 코먼 여러분 속에. 저혁 그랜드 식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맛을 성실히 전해드려야
 있는 최선에 방법을 다하려고 오늘도 온정성을
 다 하려고 하옵니다. 아울러,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하옵니다.
 갈비와 불고기는 미리 주문해 주세요.
 "단체 주문도 환영합니다."

8512 20TH AVE. N.E. SEATTLE, WASHINGTON 98125
 ☎ (206) 525-8334



SEATTLE -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

HAHN, MAN SOP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